

Part 1. 시

4강. 고전시기도 시다.

1. 고전시가가 처음이라면

고전시기도 현대시처럼 공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전시가는 공감하기가 어렵다. 왜 어려울까?

옛 사람들의 **어휘**를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는 것 밖에는 없다.

고전시가 발음 방법

1 소리내어 읽자!

연철(이어적기), 원순모음화(‘ㄹㅁㅂ’ + ‘ㅡ’ → ‘ㄴ’), 8종성법(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종성으로 사용)은 소리 내어 읽으면 파악할 수 있다.

예문

一生(일생)에 시름을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네 무삼 힘으로 가지 돌쳐 곳조차 저리 피엿는다.

해석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네 무슨 힘으로 가시 돌쳐 꽃조차 저리 피었는가.

2 아래아는 ‘ㅏ’나 ‘ㅗ’로

첫 번째 음절의 아래아는 ‘ㅏ’, 두 번째 이하 음절의 아래아는 ‘ㅗ’로 읽는다.

예문

물 흐르듯 흐느고야.
흐르도 열 두 썸 흐 돌도 설흔 날

해석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3 어두자음군은 된소리로

어두자음군은 단어의 초성에 자음이 2개 이상 쓰이는 것을 말한다.

어두자음군 중 뒤에 있는 것을 된소리로 읽는다.

예문

香氣(향기)에 잠을 췌니
그 아래 비를 띄워

해석

향기에 잠을 깨니
그 아래 배를 띄워

당일	하루 뒤
이틀 뒤	일주일 뒤



4 다음 법칙 적용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니, 나, 녀, 뇨, 뉴’ 발음을 ‘이, 야, 여, 요, 유’로 읽는다.

예문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해석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기에

5 구개음화 적용

‘ㄷ, ㅌ’와 ‘ㅣ, ㅑ, ㅓ, ㅕ, ㅗ, ㅛ’가 만나면 ‘ㅈ, ㅊ’로 읽는다.

예문

디논 히를 구버보니
어와 며 족하야 밥 업시 엇디 하고.

해석

지는 해를 굶어보니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 할까.

6 반치음 (Δ)

반치음(Δ)는 ‘ㅇ’이나 ‘ㅅ’으로
첫소리에서는 ‘ㅇ’으로, 끝소리에서는 ‘ㅅ’으로 읽는다.

정과정

예문

내 님를 그리수와 우니다니

해석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나니

용비어천가 (125장)

예문

千世(천세) 우희 미리 定(정)호산 漢水北(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호샤 卜年(복년)이 궁업스시니

해석

천세 전에 미리 (도읍지로) 정하신 한양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점지 받은 운명이 끝이 없으시니.

Part 1. 시

4강. 고전시기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1 명사

강 : 강

예문

강이 푸르니 새 더욱 희오 (두보, '절구')

해석

강이 푸르니 새 더욱 희고

가을 : 가을

예문

어느 가을 이른 보랏빛 (월명사, '제망매가')

해석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곳 : 가. 끝.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곳'으로 나타난다.)

예문

마수미 곳홀 좇누아져 (충담사, '찬기파랑가 - 양주동 해독')

해석

마음의 끝을 좇으려다

건곤(乾坤) : 하늘과 땅. 온 세상.

예문

건곤(乾坤)도 가옴 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 (송준, '면앙정가')

해석

온 세상이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경이롭다.

곰비/님(림)비 : 뒤/앞.

예문

德(덕)이란 곰비에 받좁고, 福(복)이란 림비에 받좁고 (작자 미상 '동동')

해석

덕이란 뒤에 바치웁고, 복은 앞에 바치웁고



꽃 : 꽃

예문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돌윗고지여 (작자 미상, '동동') 삼월 지나며 핀 아아 늦봄 진달래꽃이여

해석

관산 : 국경. 관문.

예문

사호멧 무리 관산 북녀괴 잇느니 (두보, '등악양루')

해석

싸움터의 말이 관산 북쪽에 있으니

나리 : 시내

예문

새파란 나리여히 / 기랑(耆郎)의 즈시 이슈라
(충당사, '찬기파랑가 - 양주동 해독')

해석

새파란 냇물에 / 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날애 : 날개

예문

향 드든 날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정철, '사미인곡')

해석

향 문은 날개로 님의 옷에 움으리라

남여(藍輿) : 가마

예문

남여(藍輿)를 비야 투고 솔 아리 구븐 길로 오며 가며 흥논 적의
(송순, '면앙정가')

해석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너름 : 여름

예문

긴 너름스 강촌애 일마다 유심호도다 (두보, '강촌')

해석

긴 여름의 강촌의 일마다 한가롭도다.

Part 1. 시

4강. 고전시가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녹양(綠楊) : 푸른 버드나무

예문

녹양방초(綠樣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정극인, '상춘곡')

해석

푸른 버드나무는 가랑비 중에 푸르도다.

딛 : 밟

예문

딛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작자 미상, '서경별곡')

해석

딛은 데 쇼성경 사랑하지만

도롱이 : 비옷

예문

도롱이에 흙의 걸고 뽕 곱은 검은 쇼 물고 (위백규, '농가구장')

해석

도롱이에 호미 걸고 뽕 곱은 검은 소 물고

도화(桃花) : 복숭아꽃.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예문

도화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작자 미상, '유산가')

해석

복숭아꽃 만발하여 여기저기 붉구나.

모첨(茅簷) : 초가지붕의 처마.

예문

모첨(茅簷) 비친 히를 옥루(玉樓)의 올리고져. (정철, '사미인곡')

해석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뵈 : 산

예문

이 뵈히 안자 보고 더 뵈히 거러 보니 (송순, '면앙정가')

해석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물 : 물

예문

7업슨 물결이 깎편 듯하여 있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끝없는 물결이 비단 편 듯하여 있다.

바를 : 바다

예문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작자 미상, '청산별곡')

해석

살겠노라 살겠노라 바다에 살겠노라

반중(盤中) : 소반 위. 밥상 위.

예문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박인로, '조홍시가')

해석

소반 위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는구나.

백구(白鷗) : 흰 갈매기 (자연친화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동원되는 자연물이다.)

예문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존나가 제 존나가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욕심 없는 백구는 나를 쫓는가 저를 쫓는가

별 : 벼랑

예문

六月(유월)스 보로매 아으 별해 부른 빗 다호라. (작자 미상, 동동)

해석

유월 보름에 아아 벼랑에 버린 빗 같구나.

블 : 불

예문

성문(城門) 모딘 블의 옥석(玉石)이 함피 타니 (조위, '만분가')

해석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Part 1. 시

4강. 고전시가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벽계수(碧溪水) : 푸른 시냇물

예문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정극인, '상춘곡')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해석

사창(紗窓) : 비단 창. 여인의 방.

예문

사창(紗窓) 여원 잠을 살뜰리도 깨오는고야. (작자 미상, '귀뚜리 저 귀뚜리~') 비단 창에 여원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해석

삼춘(三春) : 3개월의 봄.

예문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봄날 꽃과 버들 좋은 시절의 경치가 의미없다.

삼하(三夏) : 3개월의 여름.

예문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내려오니 (박인로, '선상탄') 을사년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해석

삼추(三秋) : 3개월의 가을.

예문

人間(인간) 六月(유월)이 여기 三秋(삼추)로다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인간 세상의 유월(한여름)이 여기(성산)는 (시원한) 가을이로구나

삼동(三冬) : 3개월의 겨울.

예문

삼동(三冬)에 뽕옷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마자 (조식, '삼동에 뽕옷 입고~') 한겨울에 뽕옷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 맞으며

해석

소(沼) : 연못

예문

억만장(億萬丈) 소희 빠져 하늘따를 모놀노다 (조위, '만분가')

해석

억만 장 깊은 연못에 빠져 하늘땅을 모르는구나.

수간모옥(數間茅屋) :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

예문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정극인, '상춘곡')

해석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슈품(手品) : 솜씨

예문

슈품(手品)은 ㄱ니와 제도(制度)도 ㄱ줄시고, (정철, '사미인곡')

해석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시비(柴扉) : 사립문

예문

시비(柴扉)에 거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송순, '면앙정가')

해석

사립문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시앗 : 첩

예문

요악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에 (작자 미상, '용부가')

해석

요사스럽고 악한 아우 동서와 여우같은 첩년에

실술 : 귀뚜라미

예문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올 제,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가을 달빛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침상에 올 때

Part 1. 시

4강. 고전시가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쌍 : 땅

예문

이 싸흠 브리곡 어디 갈터 홀디 (충담사, ‘안민가 - 양주동 해독’)

해석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 수 있겠는가 하면

약수(弱水) : 도교적 소재. 신선이 되기 위해 건너야 한다는 전설의 강.

예문

약수(弱水) 가리진디 구름 길이 머흐러라 (조위, ‘만분가’)

해석

약수 가로놓인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여름 : 열매

예문

불휘 기픈 남근 브루매 아니 뭇썩 곳 도쿄 여름 하노니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해석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연하(煙霞) : 안개와 노을

예문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밋는 듯. (정극인, ‘상춘곡’)

해석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은 비단을 펼쳤는 듯.

옥창(玉窓) : 옥으로 된 창. 여인의 방.

예문

옥창(玉窓)에 심곤 매화 몇 번이나 피여진고.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지는가.

우음 : 웃음

예문

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도하 호노라. (윤선도, ‘만흥’)

해석

말씀도 웃음도 없어도 못내 좋아 하노라.

이리 : 아양. 애교.

예문

이리야 교티야 어जू러이 구똥썸디 (정철, '속미인곡')

해석

애교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는데

이화(梨花) : 배꽃. 흰색의 색채 이미지

예문

이화(梨花) 가디 우희 밤낮줄 못 올거든 (조위 '만분가')

해석

배꽃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정지 : 부엌

예문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작자 미상, '청산별곡')

해석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부엌에 가다가 듣노라.

제 : 때

예문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위백규, '농가')

해석

아마도 하느님 너희 만들 때 날 위하여 만드셨다.

즈믄 : 천

예문

즈믄 히를 아즐가 즘흔 히를 외오곰 녀신들 (작자 미상, '서경별곡')

해석

천 년을 아아 천 년을 외로이 지내신들

즌 데 : 진 곳(위험한 곳)

예문

어귀야 즘 데를 드터올세라 (작자 미상, '정읍사')

해석

아아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Part 1. 시

4강. 고전시가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줏 : 모습이나 모양.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중’으로 나타난다.)

예문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작자 미상, ‘동동’)

해석

만 명을 비칠 모습이시다.

청약넙/녹사의 : 샷갓/우비

예문

청약넙(靑簑笠)은 써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 (운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샷갓은 써 있노라 우비 가져오는가.

초당(草堂) : 초가집.

예문

강호(江湖)에 너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맹사성, ‘강호사시가’)

해석

자연에 여름이 드니 초가집이 한가하다.

촉 : 초. 촛불.

예문

방 안에 헛는 촉불 놀과 이별하엿관대 (이개, ‘방 안에 헛는 촉불~’)

해석

방 안에 켜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침선 : 바느질

예문

침선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 새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

해석

바느질 돕는 도구를 각각 이름을 정하여 친구로 삼을 때,

푸람 : 휘파람

예문

을프락 푸람호락 노혜로 놀거니 (송순, ‘면앙정가’)

해석

(시를)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플 : 풀

예문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소라. (정철, 관동별곡)

해석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시는구나.

하암(향암) : 어리석은 시골뜨기.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예문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分(분)인가 호노라. (윤선도, '만흥')

해석

어리석은 향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해오라비 : 해오라기. 하얀 백로

예문

검은 까마귀 해오라비 되도록에 (김구, '올희 달은 다리')

해석

검은 까마귀 해오라기 되도록에

해동 : 우리나라. (=계림, 동이, 동방)

예문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해석

해동(한국)의 여섯 용이 내려와 (하는) 일마다 복이 넘치니

행화(杏花) : 살구꽃. 분홍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예문

桃花杏花(도화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피여 있고 (정극인, '상춘곡')

해석

도화와 행화는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홍진(紅塵) : 속세.(=인세, 인간, 하계)

예문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호고, (정극인, '상춘곡')

해석

속세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이 나의 생애는 어떠한가?

Part 1. 시

4강. 고전시가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황운(黃雲) : 누런 구름. 잘 익은 곡식이 펼쳐진 들판을 이르는 비유적 표현.

예문

황운(黃雲)은 또 엇디 만경(萬頃)에 퍼져 디오 (송순, '면앙정가')

해석

잘 익은 곡식은 또 어찌 온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험가림 : 생각. (=험, 헤음)

예문

일모슈둑(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정철, '사미인곡')

해석

하루가 저물어가는 때에 생각도 많기도 많구나

2 동사, 형용사

가없다 : 끝없다.

예문

복년이 가없으시니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해석

복된 해가 끝없으시니

괴다 : 사랑하다.

예문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죽혼가마는 (정철, '속미인곡')

해석

내 얼굴 이 행동이 임께서 사랑하실 만한가마는

긋다 : 끊어지다.

예문

노픈 듯 누즌 듯 긋는 듯 닳는 듯 (송순, '면앙정가')

해석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녀다 (니다, 네다) : 가다. 지내다.

예문

즈믄히를 외오곰 녀신돌 (작자 미상, '서경별곡')

해석

천 년을 외롭게 살아가신들

늦기다 : 흐느끼다

예문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정철, '사미인곡')

해석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넋다 : 이어지다.

예문

노픈 듯 녹은 듯 굶는 듯 넋는 듯 (송순, '면앙정가')

해석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동다(도타) : 좋다

예문

강촌(江村) 온갖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강촌 온갖 꽃이 먼 빗으로 보니 더욱 좋다

몰다 : 마름질하다. 재단하다. 만들다.

예문

칼로 몰아 냐가, 붓으로 그려 냐가, (정극인, '상춘곡')

해석

칼로 마름질해 냐나, 붓으로 그려 냐나,

뒤편다 : 움직이다.

예문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 뒤편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해석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Part 1. 시

4강. 고전시기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벼기다 : 우기다. 모함하다.

예문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정서, '정과정')

해석

우기시던 이 누구십니까.

선희다 : 서운하다.

예문

선희면 아니 올세라 (고려 가요, '가시리')

해석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슬히 : 슬피. 슬프게.

예문

니 빈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박인로, '누항사')

해석

내 가난 슬프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식어디다 : 사라지다

예문

노가디고 식어지여 혼백(魂魄)조차 훗터지고 (조위, '만분가')

해석

녹아지고 사라져서 혼백조차 흩어지고

씩우다 : 꺼리다

예문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정극인, '상춘곡')

해석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짧다 : 짧다

예문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작자 미상, '귀토리 저 귀토리~')

해석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좋다(조타) : 맑다. 깨끗하다.

예문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정철, '관동별곡')

해석

맑거든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거든 맑지 마라.

어리다 : 어리석다

예문

어리고 우환(迂闊)홀산 이 니 우히 더니 업다. (박인로, '누항사')

해석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이 나보다 더한 이 없다.

어엿브다 : 불쌍하다

예문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정철, '사미인곡')

해석

불쌍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얼다 : 사랑하다. 육체적 사랑을 의미.

예문

선화공주니문 / 님 그스지 얼어 두고 (서동, '서동요')

해석

선화공주님은 / 님 몰래 정을 통해 두고

외다 : 틀리다. 잘못되다.

예문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윤선도, '견회요')

해석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틀리다 하나

여희다 : 여의다. 이별하다.

예문

천만리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웁고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히~')

해석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과 이별하고

Part 1. 시

4강. 고전시가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이슷하다 : 비슷하다.

예문

산 접동새 난 이슷하요이다 (정서, '정과정')

해석

산 접동새 나와 비슷하구나.

하다 : 많다.

예문

셔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박인로, '누항사')

해석

세 흙 밥 다섯 흙 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허다 : 하다.

예문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허여라.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 듯 말 듯 하구나.

헌사하다 : 야단스럽다. 대단하다.

예문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정철, '관동별곡')

해석

아아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허다 : (악기, 불 등을) 켜다.

예문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허거를 드로라
(작자 미상, '청산별곡')

해석

사슴이 쏫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3 부사

건듯 : 문득

예문

동풍(東風)이 건듯 부니 물결이 고이 난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동쪽에서 바람이 문득 부니 물결이 고요하게 일어난다.

고터 : 다시

예문

급장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정철, '관동별곡')

해석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모쳐라 : 마침

예문

모쳐라 밤일식 만정 형여 닳이런들 늬 우일 번후패라.
(작자 미상, '님이 오마 후거늘')

해석

마침 밤이기에 다행이지 행여 닳아있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빗겨 : 비스듬히. (=빗기, 비겨)

예문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 비스듬히 안아

슬궂지 : 실컷. (=슬궂장, 쓸커시, 쓸커디)

예문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궂지 용여(容與)후차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넓고 맑은 물에 실컷 즐겨 보자

Part 1. 시

4강. 고전시기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수이 : 쉽게

예문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정철, '사미인곡')

해석

짧은 해 쉽게 끝나고 긴 밤을 고쳐 앉아

주로 : 자주

예문

구름 비치 조타 하나 검기를 주로 한다 (윤선도, '오우가')

해석

구름 빛이 깨끗하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저근덧 : 잠깐 동안

예문

저근덧 밤이 드러 풍낭(風浪)이 덩(定)히거늘, (정철, '관동별곡')

해석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거늘

흐마 : 벌써

예문

흐마 밤 들거냐 주규(子規) 소리 맑게 난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해석

벌써 밤이 되었는가 접동새 소리 맑게 난다.

4 조사, 어미

~곰 : 강조의 접미사.

예문

달하 노피곰 도다샤 / 어긌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해석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 아아 멀리멀리 비추어 주세요.

~고져 : ~하고 싶다.

예문

일이 도흔 세계(世界) 놉대되 다 뵈고져. (정철, '관동별곡')

해석

이렇게 좋은 세계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나다 : ~느냐?

예문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허난설헌, '규원가')

해석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구나.

~다호라 : ~같구나.

예문

이월(二月)스 보로매 /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작자 미상, '동동')

해석

2월의 보름에 / 아아 높이 켜 등불 같구나.

~다히 : ~의, ~쪽

예문

무등산(無等山) 흔 활기 뵈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송순, '면앙정가')

해석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Part 1. 시

4강. 고전시기도 시다.

고전시가 필수 어휘

~도곤 : ~보다

예문

녀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허려니. (정철, '관동별곡')

해석

여산이 여가보다 낫단 말 못하겠구나.

~르세라 : ~할까 두렵다. ~로 구내!

예문

어귀야 존데를 드려올세라.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해석

아아 진 데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쿠니와 : ~커녕

예문

사름은 쿠니와 놀새도 굿쳐 있다. (정철, '사미인곡')

해석

사람은커녕 나는 새도 끊어져 있다.

~손디 : ~에게 (=~이손디)

예문

뫼터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홍랑, '뫼터들 갈히 것거~')

해석

뫼터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우희 : (시간과 함께 쓰여) ~전에. (공간과 함께 쓰여) ~위에.

예문

구름 우희 나는 새야 네 아니 아뉘터냐 (조위, '만분가')

해석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는 아니 알겠더냐

~외에 : ~말고, ~를 제외하고는

예문

淸風明月(청풍명월) 外(외)에 었던 벼이 잇사올고. (정극인, '상춘곡')

해석

맑은 바람과 밝은 달 外에 어떤 벼이 있을까?

~하 : 높임의 호격 조사.

예문

달하 노피곰 도다샤 /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해석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 아아 멀리멀리 비추어 주세요.